
2018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구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

2018. 6.

목 차

- 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 1
- 해외연구기관 방문 주요 내용 6
 - ① <북유럽지역> 방문기관 주요내용 및 결과
 - ② <오세아니아지역> 방문기관 주요내용 및 결과
- 방문결과 종합 및 시사점 52

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

□ 개 요

- (방문목적)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연구기관 등을 현지방문하여 국제협력 관계발전 및 교류,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
- (방문기간) 2018 5. 28.(월) ~ 6. 5.(화) (7박9일)
- (방문국가) A그룹(스웨덴, 노르웨이), B그룹(호주, 뉴질랜드)
- (방문기관)

구분	방문기관	
	노르웨이	스웨덴
A그룹 (북유럽지역)	① 사회연구소	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②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② 학습경제연구역량혁신센터
B그룹 (오세아니아지역)	호 주	
	① 로위 연구소	① 뉴질랜드공공정책연구소
	② 호주 연구위원회	
	③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 (참여대상) 총 41명 내외 (별첨 참조)
 - 연구회 및 연구기관 : 2017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41명) 등

□ 주요 활동사항

- (사전조사)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기관 방문 전에 사전질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전달
- (주요활동) 선진(연구)기관 1~2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과제 발굴부터 선정까지 일련의 과정, 정부정책 기여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구기관 발전에 효율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 (약1시간 내외)
- (후속조치) 방문한 기관에 대하여 사전질의 내용 및 토론 중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확산

□ 주요일정(안)

<A그룹-북유럽지역>

일자	국가	일 정(안)	비고
5.28.(월) <1일차>	인천 모스크바 스톡홀름	① [출국] 인천→모스크바	항공
		② [환승] 모스크바→스톡홀름	항공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29.(화) <2일차>	스톡홀름	① [사전점검회의] 방문단 사전모임 등	
		② [기관방문1]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③ [회의1]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④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30.(수) <3일차>	스톡홀름 오슬로	① [이동] 스톡홀름→오슬로(약 4시간)	유로철
		② [회의2] 방문기관 사전조사서 검토 회의 등	
5.31.(목) <4일차>	오슬로	① [기관방문2]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② [중간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중간점검 회의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1.(금) <5일차>	오슬로 게일로	① [기관방문3]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② [회의3]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2.(토) <6일차>	게일로 베르겐 레르달	① [이동] 피요로드→베르겐(약 4시간)	
		② [회의4] 결과보고서 작성 준비 및 토론 등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3.(일) <7일차>	레르달 뮌헨 오슬로	① [최종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최종정리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논의 등	
		② [이동] 플롬→오슬로(약4시간)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4.(월) <8일차>	오슬로 모스크바	① [회의5]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자유 토론회	
		② [귀국1] 오슬로→모스크바	항공
		③ [귀국2] 모스크바→인천	항공
6.5.(화) <9일차>	인천	① [입국] 인천	

* 상기 주요일정은 주요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음.

〈B그룹-호주, 뉴질랜드 지역〉

일자	국가	일 정(안)	비고
5.28.(월) <1일차>	인천	① [출국] 인천→오클랜드	항공
5.29.(화) <2일차>	오클랜드	① [사전점검회의] 방문단 사전모임 등	
		②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30.(수) <3일차>	오클랜드 웰링턴	① [이동] 오클랜드→웰링턴 (약 2시간)	현지항공
		② [기관방문1] 공공정책연구소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31.(목) <4일차>	웰링턴 시드니	① [회의1] 방문기관 간담회 자료 정리 및 토론 등	
		② [이동] 웰링턴→시드니 (약 2시간)	현지항공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1.(금) <5일차>	시드니 캔버라	① [이동] 시드니→캔버라 (약 3시간)	전용차량
		② [기관방문2] 호주 연구위원회	
		③ [회의2] 방문기관 간담회 자료 정리 및 토론 등	
		④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2.(토) <6일차>	시드니	① [중간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중간점검 회의	
		② [회의3]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토론 등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3.(일) <7일차>	시드니	① [회의4] 결과보고서 작성 준비 및 논의 등	
		②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4.(월) <8일차>	시드니	① [기관방문3] 로위 연구소	
		② [최종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최종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6.5.(화) <9일차>	인천	① [입국] 인천	

* 상기 주요일정은 주요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음.

첨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방문 대상자

<A그룹> 북유럽지역(스웨덴, 노르웨이) (7박 9일)

NO	기 관 명	성 명	성 별	직 급	비 고
합 계		총 21명 (남10명, 여 11명)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윤수	남	선임전문위원	단장
2		육현민	남	부전문위원	우수직원
3		여지인	여	부전문위원	행정지원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미나	여	선임행정원	
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승중	남	행정원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권	남	주임사무원	
7	산업연구원	조계환	남	책임전문원	
8	산업연구원	이정란	여	선임전문원	
9	한국교육개발원	이규향	여	선임행정원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근수	남	책임전문원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정미	여	선임행정원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영철	남	책임전문원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영란	여	선임행정원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병택	남	행정원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은지	여	선임행정원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경	여	선임행정원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남순	여	사무원	
18	한국행정연구원	고승범	남	선임행정원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태영	여	책임행정원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수현	여	전문원	
21	국토연구원	송정현	남	책임전문원	

<B그룹> 오세아니아지역(호주, 뉴질랜드) (7박 9일)

NO	기 관 명	성 명	성 별	직 급	비 고
합 계		총 20명 (남11명, 여 9명)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호연	여	선임전문위원	단장
2		조희제	남	부전문위원	우수직원
3		박혜란	여	부전문위원	행정지원
4	국토연구원	오희정	여	3급관리원	
5	한국교육개발원	박용훈	남	선임행정원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기준	남	선임행정원	
7	한국교통연구원	전윤미	여	책임행정원	
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규형	남	책임행정원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환	남	책임행정원	
10	한국개발연구원	양정삼	남	전문위원	
11	한국개발연구원	김경선	여	선임행정원	
12	KDI국제정책대학원	이병권	남	선임전문원	
13	한국법제연구원	김미혜	여	전문연구원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창우	남	선임전문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자연	여	행정원	
16	육아정책연구소	최혁준	남	행정원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민숙	여	업무원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원신	남	행정원	
19	통일연구원	이환선	여	행정원	
20	에너지경제연구원	안병영	남	선임행정원	

해외연구기관 방문 주요내용

<해외연구기관 방문 A그룹>

〈북유럽 지역〉
방문기관 주요내용 및 결과

①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②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③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④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1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1.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29.(화) 10:00,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한윤수 단장 외 20인
 -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 Anna-Karin Jonsson (Russia and Eurasia Programme Manager)

2. 기관개요

- 설립연도 : 1938년
- 위치 : 스웨덴 스톡홀름(Drottning Kristinas vag 37 114 28 Stockholm)
- 목적 및 주요역할
 - 국제 관계 및 외교 정책에 관한 연구,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국제 관계, 외교 및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국제 관계에 대한 열린 대화의 창구가 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강연 및 세미나, 온라인 포럼 운영, 저널·논문·기사 및 출판물 발간을 통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조직 및 구성

- 직원의 구성은 자체인력과 국제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며 자체 인력은 70여명으로 연구자, 저널리스트, 분석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에디터, 행정인력으로 구성됨. 연구파트 책임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프로그램 파트별 코디네이터가 존재함. 행정파트는 연구자를 서포트 하는 역할.

- 외무부에서 기본 자금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20%로 행정 지원 예산으로 사용됨. 연구자들은 정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예산을 받음. 스웨덴의 5개의 큰 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의 지원을 받고, EU에서도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아시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한국 연구재단과 일본연구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 연구프로그램

- 연구 프로그램은 5개 파트로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국제정치 및 안보 파트로 구성되며 이 중 아시아 파트가 가장 큰 연구파트임.
- (유럽 프로그램) 유럽 통합 및 탈통합, 유럽 안보, 대서양지역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연구
-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러시아, 유라시아 및 동유럽 지역 연구자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러시아와 주변국가의 정치 및 경제 발전, 러시아의 문화와 정치의 관계, 발틱해 지역의 안보, 중앙 아시아와 코카서스의 발전, 러시아의 EU국가들 사이의 관계 등을 중점 연구
- (중동·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국제적으로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여기에 천연자원과 반정부 조직, 테러 등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음. 시리아 및 기타 중동 분쟁지역 연구,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통합,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적 변화 등을 중점 연구
- (아시아) 중국의 부상, 신흥경제국으로 떠오르는 ASEAN 국가들에 대해 외교, 군사 및 경제적 맥락에서의 변화를 탐색함.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 해협 및 한반도 긴장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
- (국제정치 및 안보) 남북간 경제관계,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국가를 초월한 안보 이슈, 인도주의적 개입, 사이버 보안 등을 중점 연구

○ 연구활동의 특징

- 국제 관계 및 외교 정책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학술 및 정책 중심 연구를 수행하며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편향되지 않은 연구를 함. 광범위한 시각을 유지하되 스웨덴과 관련된 국제관계 및 안보정책 문제에 중점을 둠

○ 보통 연구프로젝트의 기간은 3~5년이며 대부분은 개인 프로젝트로 하며, 중간에 타 기관에서 요청되는 단기 프로젝트도 존재함. 높은 수준의 연구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른 기관, 대학 및 대학의 연구자, 분석가뿐만 아니라 조직, 의사 결정자, 정부 및 기업과의 지속적인 개발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음.

□ 연구성과 확산

○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교육이며 출판물을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풀어서 쓰거나 아카데미 저널에 기재하며 70여개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함. 특히 일반 시민들의 관심대상의 이슈자료는 한달에 1번정도 발행함. 고등교육은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로서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는 교사들이 수업자료로도 사용하고 UI 출판물과 온라인포털 등을 통하여 스웨덴의 고등학교, 대학 및 도서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결과물은 우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저널에 기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1년에 4회씩 UI프리프, UI페이퍼를 발행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출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음. 자료는 수익사업을 위해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제(일반인 900크로나)를 도입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응답

- 최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연구결과에 대한 중립성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 연구 요청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연구자들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구소 차원이 아닌 각 연구자들의 책임임.
-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 전담부서가 있는지?
 - 연구소에 PR파트가 존재하며 프로젝트별 코디네이터가 있어 연계하여 홍보함.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 연구소 기관장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정부지원에 대한 감사를 받는지?
 - 연구소는 민간단체로 수십개의 협회가 소속되어 있음. 운영위원회에서 3년의 임기로 기관장을 선출함.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음.
- 평가시스템이 존재하는지?
 - 평가를 통하여 차등하는 시스템은 없음. 연구자들 대부분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함.

4. 방문후기 및 시사점

-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는 크지 않은 규모의 연구소이지만 80년의 역사를 가진 스웨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음

- 지역별로 나누어진 프로그램들은 많은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핵심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들이 보다 활발한 개방적 협력연구가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일반국민과 고등학교에 제공되는 자료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음. 국내 연구기관도 연구성과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방문>



2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1.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31.(목) 10:00,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한윤수 단장 외 20인
 -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 **Tanja Storsul**(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진행순서
 - 연구소 소개 및 주요 역할 소개
 - 연구영역과 연구성과 소개
 - 질의 응답

2. 기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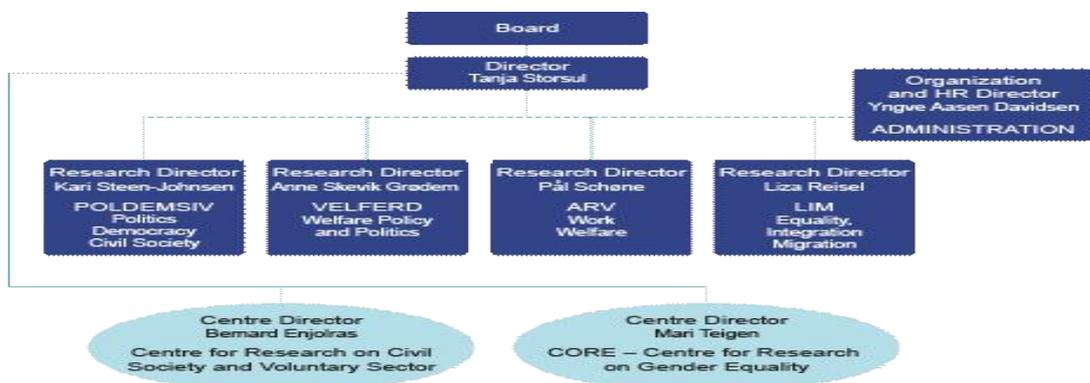
- 설립연도 : 1950년
- 위치 : 노르웨이 오슬로(Munthes gate 31, 0260 Oslo)
- 목적 및 주요역할
 - 사회학 연구의 선구자적 기관이며 오슬로의 독립적인 연구재단으로 설립되어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 등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재단으로 국내외 대학 및 연구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정치·경제분야로 경제학은 노르웨이 사회의 일과 직장에 관한 연구개발에 높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두에서 사회, 정치 및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에 대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관련성이 있는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높은 학문적 표준을 제시함.

3. 주요내용

□ 조직 및 구성

- 행정인력 10여명, 연구인력은 50여명의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학자로 총 6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4개의 연구그룹과 2개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분야가 교차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4개의 연구그룹은 ①평등, 통합, 내국인, 이민자 연구그룹 ②정치, 민주, 시민사회 연구그룹 ③복지정책과 정치 연구그룹 ④일(노동)과 복지 연구그룹 으로 구성
 - 정부(가정과 어린이 평등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Equality(CORE)는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취업·임금의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최근 10년간 연구결과는 여성의 사회적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공기업의 경우 과거 CEO가 많았으나 최근 10년간 여성 CEO가 늘어나 공기업의 CEO의 남녀 균등을 유지하는데 기여함.
 - 정부(문화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Centre for Research on Civil Society and Voluntary Sector는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조직도〉



- 연구원의 예산은(2017년도 기준) 노르웨이 연구위원회(RCN)에서 55%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정부예산(Basic funding)이 12%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 공기업, 사회단체에서 27%, 북유럽정부연합 등에서 3%, EU정부 등에서 지원받는 3%의 예산으로 운영됨

□ 연구분야

- 7개 주제의 연구를 주요 수행하고 있음.
 - (시민사회, Civil Society) 사회연구원의 오랜 정통 연구분야로서 노르웨이의 참여, 조직, 정치 및 정책의 장기 추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그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디지털화, Digitalization)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화가 연구 주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공통분모로 한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음. ‘내·외부의 부처에서 의사소통 및 통치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정부기관 또는 정치인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 (선거와 민주주의, Elections and Democracy) 투표와 투표율, 선거시스템, 투표연령, 국민 투표 등을 연구주제로 하며 1957년부터 노르웨이 국립 선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수십년 동안 선거와 민주주의에 기여함. 이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전파함.
 -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사회적 평등, 임금, 채용, 교육, 노동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성별 차이를 연구하며 양성 평등 분야의 선두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나아가 인종, 연령, 세대 및 사회계층이 남녀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복지, Welfare) 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의 성과물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민문제와 실업 증가 등 사회문제에 비추어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구함. 복지는 국가예산의 70%를 차지하며 정치와 정책 등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

- (노동생활, Working life) 노동생활의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노동과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복지 및 이주와 관련된 주제와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함.

□ 연구관리 및 성과

- 연구사업에 대해 각각의 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선정, 제안서 작성 및 프로젝트 책임자를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외부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분야의 확장과 연구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연구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생소한 연구분야도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연구행정은 고품질의 연구결과를 만들기 위해 체크포인트를 설정하여 연구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행정 직원과 연구책임자는 3차례 연구 감사를 진행)를 실시하고 연구 진행과정의 quality control을 실시하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함.
- 2017년도에 7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5%는 대형과제임. 학술지나 서적에 86건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이중 47%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 되었음. 연구소에서는 8개의 서적과 22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으 연구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음.
- 연구결과는 노르웨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인 이슈를 제공함.

4. 방문후기 및 시사점

- 정부로부터 운영 예산을 받지만 기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음. 고품질의 연구보고서를 위해 중요 체크포인트를 선정하여 연구책임자와 행정 직원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 평가 실시하는 점이 인상적임. 노르웨이 사회연구원은 연구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연구 분야 확장하는 노력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서도 본받을 점임.

- 노르웨이 사회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인 남녀평등, 이주, 시민 사회, 선거와 민주주의, 복지, 직장생활등 사회문제와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참고할 만한 기관임.
-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 공개 토론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차이를 만드는 연구(Research that makes difference)를 위해 사회적 동향을 분석하여 이슈를 발견하고 어떤 정책적 결정이 있는지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음. 정확하고 영향력 있는 연구결과를 내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하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있음.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설명자료>

About the institute

Established in 1950
Pioneer in Norwegian social science
An independent foundation
Self governing
Ca 60 employees
Sociology
Political science
Economics



Our strategy

Mission
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hall be at the forefront of research on society, politics and working life.

Guiding principle
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hall unite applied and basic research in its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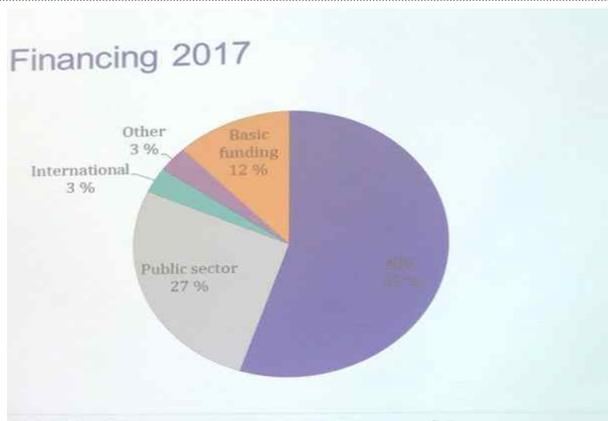
Values
Our research shall be independent, creative, relevant and of a high academic standard.

Organization

- Four thematic research groups
 - Equality, inclusion, migration
 - Politics, democracy, civil society
 - Welfare policy and politics
 - Work and welfare
- Two centres (externally financed)
 - CORE –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Equality
 - Centre for Research on Civil Society and Voluntary Sector

Research areas

Research areas	
Civil Society	Civil society and voluntary sector International impact.
Digitalization	Media, politics and society.
Elections and Democracy	The Norwegian National Election Studies – since 1957.
Gender equality	Family, working life, politics and policy.
Migration	Migration, integration, labour, education, policy and politics.
Welfare	Welfare policies, and the outcomes of such policies.
Working life	Labour and working life.



Project management

- We respond to calls
- Brainstorming in team – often across disciplines and groups
- Project manager selected – responsible for developing proposal and running project
- Research director (head of research group) overviews and ensures high quality
- Research administration provides documentation and check-points (economy, contracts etc)



Achievements 2017

- 86 scientific articles in journals and books (47% of journal articles are international)
- 8 books
- 22 reports
- Emphasis on open access
- Emphasis on communication and impact.

Research that makes a difference

Our results are emphasised in policy making and public debate.



Our results are emphasised in policy making and public debate.

DN mener: Kjønn skal ikke påvirke lønn og ansettelser

Lansering av regjeringens strategi mot hatefulle ytringer

<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방문사진>



3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1.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31.(목) 32:00,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 참석자
 - 방문단 : 한윤수 단장 외 20인
 - 국제평화연구소 : Lene Kristin Borg(Administrative Director)
- 진행순서
 - 연구소 소개 및 주요 역할 소개
 - 질의 응답

2. 기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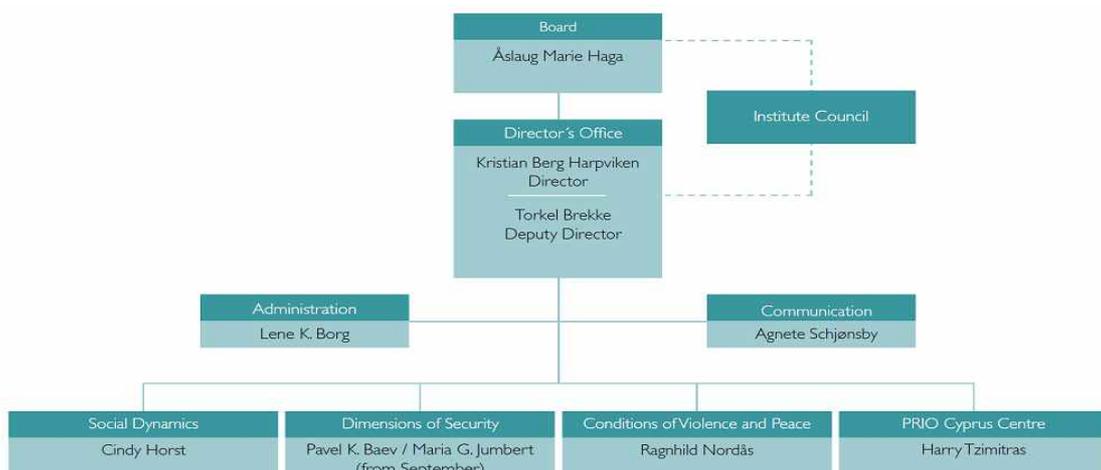
- 설립연도 : 1959년
- 위치 : 노르웨이 오슬로(Hausmanns gate 3, 0186 Oslo)
- 목적 및 주요역할
 -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이하 ‘PRIO’)는 세계 최초의 평화연구 기관으로 국가, 집단 및 개인 간의 평화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평화연구를 중요한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평가에 따르면 PRIO는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정도의 모범이 되는 연구기관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매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예측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PRIO의 연구는 정책과의 효과적인 연계로 유명함. 견고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국제기구(UN, 세계은행), 비정부기구(NGO), 언론 및 노르웨이 내 여러 정부부처 등에 정책 관련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정보 분석 및 정책의 결정, 다양한 갈등주체 간 대화와 화해, 분쟁의 해결 등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함.

3. 주요내용

□ 조직 및 구성

- PRIO는 연 평균 약 75명의 전세계 출신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연구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음. 15여명은 행정지원 직원, 50여명 이상은 박사급 연구원으로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의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그룹별 프로젝트는 연 평균 10건 내외로 연구자 1인당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코디네이터가 1~2인을 담당함.
 - Business and Peace
 - Civilians in Conflict
 - Conflict Patterns
 - Gender
 - Governance
 - Humanitarianism
 - Law and Ethics
 - Media
 - Migration
 - Non-state Conflict Actors
 - Peacebuilding
 - Regions and Powers
 - Religion
 - Security
 - Urbanization and Environment
- 연구원과 프로젝트는 3개의 연구부서로 운영
 - Conditions of Violence and Peace
 - Dimensions of Security
 - Social Dynamics
 - PRIO Cyprus Centre : Cyprus Nicosia에 지사 운영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조직도〉



- PRIO의 예산은 주로 노르웨이 연구위원회(RCN)에서 일반 프로젝트 보조금과 노르웨이 외무부(MFA)의 프로젝트 보조금 수익으로 운영되고, 추가 수익은 Sage Publications, European Commission 및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지원되며, 자금기반을 다변화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임.
- 2016년도 기준 PRIO의 전체예산은 약 1,600만 달러 규모이며, 상향식 프로젝트 기반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음. 모든 연구활동이 외부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PRIO의 직원들은 연구의 혁신과 프로젝트 개발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매우 능숙함.
- 이러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PRIO의 연구분야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연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자금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연구성과물의 관리·확산

- 연구성과물 현황

Type	Title	Distribution(Links)
학술지	Journal of Peace Research	Sage(Publisher's Website), Twitter, Facebook
	Security Dialogue	Sage(Publisher's Website), Blog, Twitter, Facebook
	Journal of Military Ethics	Taylor & Francis(Publisher's Websit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Sage(Publisher's Websit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IO Pub.	PRIO Papers	PRIO Website
	PRIO Policy Brief	PRIO Website
	PRIO Report	PRIO Website
	PRIO Newsletter	PRIO Website
	PRIO New Security Studies	Routledge(유료)
Database	PRIO-GRID 2.0	http://grid.prio.org/#/
	Data on Armed Conflict	http://www.pcr.uu.se/research/UCDP/
	Small Arms Trade Database	http://www.nisat.org/
	Mapping Arms Data	http://nisatapps.prio.org/armsglobe/index.php

- 「Journal of Peace Research」, 「Security Dialogue」 학술지2종은 SSCI등재 저널로 선정되어 저널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한국외국어 대학교와 학술지 협력 및 학술교류에 관한 협의 하에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를 2011년부터 Sage출판사를 통하여 공동으로 발간·배포하고 있음.
- 연구그룹별 매년 3회~10회 이상의 컨퍼런스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정보를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PRIO Paper, Policy Brief, Report, Newsletter 등의 전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기관 및 발간 저널별 SNS, Blog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완료된 프로젝트 원문 아카이브 공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까지 공개하며 모든 프로젝트는 연도별, 주제별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음.
- 연구수행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Ph.D과정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운영
 - Research School on Peace and Conflict : UiO(오슬로 대학), NTNU(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및 PRIO에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구축 차세대 평화 및 분쟁학자를 위한 연구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International Summer School : 평화연구 과정을 오슬로대학에서 40년 이상 운영하고 있음.
 - UiO-Prio Student Programme : 석사학위(MA)과정 학생들에게 전문연구원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PRIO에서 논문을 쓰고, 이 결과물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일부로도 제공함.

□ 연구환경 및 복지

- PRIO는 훌륭한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건강·안전 및 연구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음. 직원은 연구소의 협의회 및 이사회의 회원 자격 또는 대표를 통해 연구소의 의사 결정에 참여 가능함.
- PRIO는 양성평등을 장려하고, 장애, 민족성, 출신국가, 피부색 또는 종교, 철학적 사상 등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에는 채용, 보상 및 근무조건, 홍보계획, 직업개발 프로그램 및 괴롭힘에 대한 보호가 포함됨.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기반의 채용원칙을 통해 PRIO는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발탁
 - 이사회가 승인하고 채택한 일련의 채용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선임연구원 및 연구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책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역량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연구소의 지침에 따라, 외부에 채용직위를 공고하여 구직자들 간 공개경쟁을 유도하며, 다양한 분야의 구직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신문 및 EURAXESS(유럽 내 구직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 여러 유형의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 연구원 직책에 지원하는 후보자는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PRIO의 연구범위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프로젝트 개발경험 및 리더십, 연구 협업능력,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경험 등의 능력을 필요로 함.
 - 선임연구원 및 연구교수직 후보자의 학업자격은 독립적인 학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는 수석연구원 또는 교수 수준에서 관련 능력을 보유해야 함. 또한 노르웨이 사람이 아닌 최소 1명 이상의 위원을 두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포함.

4. 방문후기 및 시사점

- PRIO는 매년 성별, 평화 및 안보센터 컨소시엄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 규모의 이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새로운 분야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PRIO가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강조되고 있음.
- 무엇보다 PRIO의 연구는 정책의 실현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음. PRIO의 연구자들은 실천적 연구로서 프로젝트 개발 및 참여를 추구하며, 정책적 제언을 넘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시키기 위해

정부부처의 다양한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연구의 본질적 성과에 대한 PRIO의 철학을 통해, 연구결과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PRIO의 주된 연구영역은 현재 한반도 평화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임. 현재까지 PRIO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수행한 프로젝트 연구는 ‘The East Asian Peace (EAP) Program(2011~2016)’ 정도임. EAP는 동아시아의 평화구조를 경쟁이론을 바탕으로 국가 간 갈등회피,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별 가치와 정서, 여론 등을 통해 거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였음. 전 세계 평화연구에 관한 PRIO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향후 남북한 통일과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한 유효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다양한 연구성과물(PRIO Paper, Policy Brief, Report, Newsletter 등)을 알맞은 채널(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을 통해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도 타깃과 채널을 연계한 연구성과 확산 체계의 설계를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확산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PRIO가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함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도 국가적 현안 이 외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적 담론을 선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됨.
- 대부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만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함.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방문사진>



4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1. 방문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1.(금) 10:00,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한윤수 단장 외 20인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 Bjørn Tore Kjellemo(Department Director),
Julie Christiansen(Senior Adviser),
Nina Hedlund(Department Director)
- 진행순서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소개
 -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협력과 공동연구 현황
 - 프로젝트 평가 관리(연구과제 선정과정)
 - 질의 응답

2. 기관개요

- 설립연도 : 1993년
- 위치 : 노르웨이 오슬로(Drammensveien 288, 0283 Oslo)
- 목적 및 주요역할
 - 1949년 부처별로 담당 연구분야 연구위원회 5개를 운영하다가 1993년 교육연구부 산하 정부기구로 통합됨. 연구 정책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 개발 활동 지원을 통한 과학·연구증진, 정부 R&D 정책 자문과 외국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에 연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뿐만 아니라 연구자, 사업자, 조사 사용자 및 연구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조직 및 구성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4개의 연구부서(과학, 에너지·자원·환경, 사회·보건, 혁신)와 1개의 행정부서로 구분되고 약 460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 노르웨이 전체의 인문, 사회, 과학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며 한화로 약 1.5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노르웨이 최대의 연구지원 기관이며 자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관련 연구사업을 지원하며 글로벌 연구지원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산하의 국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직에는 8인의 경제,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회의 다양한 국제 지원사업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 연구위원회의 특징

- 15개 정부 기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구 기관, 회사 및 공공 기관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연구에서부터 연구 기반 혁신 및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을 지원하고,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연구 정책 자문을 위한 지식 기반 제공까지 정부 및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정책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연구 확산 측면에서 노르웨이 연구의 질을 높이고 혁신과 탐험을 촉진하여 노르웨이의 국제 연구 및 혁신 참여를 위해 동원하고 연구 공동체, 산업 및 공공 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노르웨이는 리서치(연구) 나라이다'라는 목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영역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전 세계에 영역을 넓히기 위해 그에 맞는 역량과 연구 성과물, 연구팀 홍보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었음.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의 주요전략
 - 획기적인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증대
 - 사회 및 비즈니스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연구 강화
 - 보다 연구 중심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분야 육성
 - 개혁과 갱신 노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시행하는 공공부문 장려
 - 국제협력과 EU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증가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공공기초자금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할 책임이 있음. 평가의 목적은 연구 분야의 질, 효율성 및 관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연구자금 조달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연구위원회 자체, 기관 및 당국에 연구 관련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근거를 제공함.

□ 국제협력

- 연구위원회에서 국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연구협력을 하고 있음. 미국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협력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 한국과의 연구협력은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 출간물의 발행도 증가함. 공동출간물은 Health&Care분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학(연세대, 서울대, 부산대 등)과의 연구협력도 활발히 이루어 짐.
- 한국과의 프로젝트는 ‘14년에 11건, ’ 15년 18건, ‘16년에 25건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로 자연과학과 기술, 사회과학, 건강관련된 분야임.
- 2007 년 이후 EU와 한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은 ‘EUREKA’ (범 유럽연합 개발공동체) 네트워크 국가이며 ‘Eurostar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유럽 연구혁신 프로젝트인 ‘Horizon 2020’ 5G 기술 및 시스템, 나노 전자 공학, 나노 안전성, 청정에너지 혁신, 자동 운전 시스템, 극지방 연구 등을 주제로 참여하고 있음.

□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주제의 연구를 아우르며 기초연구부터 응용 연구까지 기술, 자연과학, 인문학 등 모든 연구분야를으로 지원하고 있음. 매년 약 5,000여개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 연구과제 신청은 정해진 양식(영어 사용)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면으로 제출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와 프로젝트 담당 기관에 발송함. 별도의 발표 없이 시스템 및 인력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이는 연구자와 관리자 모두 행정적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공식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청서는 공식적인 근거로 거부되며, 신청자는 신청서가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됨. 1단계 신청이 진행되면 전문연구원 3-7명이 과제를 심사함.
- 연구위원회는 공정성과 불만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련의 수립 된 절차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제공함. 공정성과 항의를 위한 패널은 연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되며, 연구위원회의 내부지침에 따라 R&D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에 대한 질문을 평가함.
- 심사위원은 프로젝트의 신청 유형 및 제안 요청에 따라 3 또는 7단계의 점수로 평가함. 레벨 4이하의 점수를 받은 제안서는 더 이상의 논의 없이 거절됨.

4. 방문후기 및 시사점

- 노르웨이 국가 연구 지원의 산실
 - 노르웨이의 인문, 사회, 과학 전반에 걸친 연구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연구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연구사업의 자금 지원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의 심의 평가조직을 별도 운영하여 연구사업지원의 내실을 기하고 있음.

-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어 노르웨이 국격의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연구지원사업의 지원형태와 방법도 좀 더 개방적인형태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연구사업의 발굴에만 제한적으로 제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격에 맞는 글로벌한 연구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시사함.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과학단지 같은 혁신기구를 설치하기보다 연구 개발비의 배분을 통해 국가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특징적임
 - 다국적 연구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노르웨이의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 국제화 및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여 많은 세미나를 걸쳐 여러 의견들을 접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 한국연구재단과도 공동연구·세미나, 연구자 정보교류 등의 협력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의 국제 연구성과가 공유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현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결과 확산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전문가 강의는 우리 기관의 향후 연구개발, 홍보전반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많은 부분이 되었음.



<해외연구기관 방문 B그룹>

〈오세아니아 지역〉
방문기관 주요내용 및 결과

① 와이카토 경영대학 / 비즈니스 연구소

② 웰링턴 뉴질랜드 연구소

③ 호주 연구위원회

④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1 와이카토 경영대학 / 비즈니스 연구소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29(화), 10:30, 와이카토 경영대학 강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정호연 단장 외 19명
 - 와이카토 경영대학/비즈니스 연구소 : Professor Frank Scrimgeour, 뉴질랜드 농업연구소 김태훈 대표 등

□ 주요내용

- 와이카토 대학교 비즈니스 연구소 개요 및 역할
 - 와이카토 대학은 1964년 뉴질랜드 정부가 설립한 국립 종합대학교로 법학, 경영학, 교육학, 관광학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과학기술분야 여러 학위과정을 신설하여 산학연대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 또한 경제적 영향분석, 농업관련 비즈니스, 재무벤치마킹, 공급망 관리 및 관광연구에 중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성과, 혁신 및 건강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 강점을 보유
 - 혁신에서 경제영향분석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계, 정부기관 및 기타 조직과 협력
 - 연구소 활동의 주요 핵심 주제로 ① 비즈니스 성과 및 리더십, ② 혁신과 농산업, ③ 서비스 부문의 비즈니스, ④ 사회의 비즈니스를 설정
 - 와이카토대 비즈니스 연구소는 MBIE(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의 R&D 재정 배분, 기금 지원 등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3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
 - 연구과제의 선정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하지만 실용화된 연구, 국민보건의학, 예방의학연구, 기초과학연구 등을 중심으로 고르게 배분 및 선정

○ MBIE의 역할 및 과학 투자

- MBIE(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뉴질랜드 경제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업무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 고성능 과학 및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R&D 예산을 지원하여, 뉴질랜드가 보다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로 변모하도록 도움
- MBIE의 주요 자금 지원 기관
 - **Callaghan Innovation** : 뉴질랜드 혁신의 성장, 규모, 강도 및 성공을 가속화하고 R&D에 투자하며 수출 성장을 지원
 - **건강연구위원회(HRC)** : 뉴질랜드 정부의 건강 연구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며, 건강 연구를 통해 뉴질랜드인들의 건강을 향상
 - **뉴질랜드 왕립 학회(Marsden)** : 독립적인 국립 과학 아카데미이며 과학 기술 사회 연맹
- MBIE는 경쟁 가능한 기금¹⁾ 마련을 통해 과학 및 혁신에 투자

○ 뉴질랜드의 국가 과학 과제

- 뉴질랜드 국민에게 중요한 이슈로 구성된 11개 국가 과학 과제²⁾는 정부가 과학 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뉴질랜드 발전을 위한 주요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
- 국가 과학 과제는 뉴질랜드 최대의 과학 기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분야의 선교사 주도 프로그램으로 대학 및 기타 연구자 간의 협력이 필요
- 학술 기관, 뉴질랜드 국영연구기관(CRI, Crown Research Institute)³⁾, 기업 및 비정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1) 촉매기금, 엔데버펀드, 파트너십, 전략적 과학 투자 기금, 마오리 혁신기금 등

2) 더 나은 시작, 더 나은 가정, 건강한 삶, 높은 가치 영양, 자연의 도전에 대한 유연성, 과학기술혁신, 지속가능한 바다 등 11개 국가 과학 과제

3) 뉴질랜드 국영연구기관(CRI, Crown Research Institute)

- CRI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8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

- 8개 연구기관 모두 정부출연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

- 뉴질랜드는 1차산업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8개 연구기관 중 4개 연구소는 농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 뉴질랜드의 R&D 투자 및 성과

- 2007년 이후 공공투자가 70%이상 크게 증가했지만, R&D투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 2014년 기준으로 R&D 투자의 32%가 '건강, 1차산업, ICT, 제도 및 환경 분야'에 집중되며, 이 투자의 51%가 고등교육기관, 39%가 기업에서, 10%가 정부에서 지출
- 사회과학, 지구 및 행성과학, 물리학 및 천문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



□ 방문후기 및 시사점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절차가 과거에 비해 연구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마련에 역점
 - 특히, 연구과제 제안서는 1페이지 내외의 간략한 내용으로 제안되며, 선정심사는 연구과제의 효용성 즉 '가치'와 전문성으로 판단
-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 및 배분을 위한 기금관리, 그리고 연구개발 등의 분야를 정부 주도에서 민영화로 바꾸었으나, 현재는 다시 정부 중심의 자금관리체제로 회귀 중
- 정부중심의 자금관리체계 하에서 혁신성장과 보수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방향, 연구개발비의 분배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

2 웰링턴 뉴질랜드 연구소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30.(수) 14:00, 뉴질랜드 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정호연 단장 외 4명
 - 웰링턴 뉴질랜드 연구소 : Emanuel Kalafatelis (Managing Partner)

□ 주요내용

○ 뉴질랜드 연구소 주요 기능

- 뉴질랜드 연구소는 공공부문을 위한 사회 연구 분야의 전문 민간 연구 기관으로 사회·시장 조사 및 프로그램 평가, 정책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
- 사회 및 비즈니스 분야 전문기관으로 유럽시장조사협회(European Society for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 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기관
- 공공부문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5개 주요 민간연구소 중의 하나로 정부 지정기관(Preferred Provider)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주요고객은 뉴질랜드 내무부, 기업혁신고용부, 보건복지부, 선거관리위원회, 환경보호청, 보건진흥청, 교통청 등이 존재

○ 뉴질랜드 연구소 특성 및 역할

- Electoral Rolls라는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민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 고객 요구에 따라 ① 사회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홍보 ② 프로그램 시험단계 평가, 최종 영향평가,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③ 공공데이터 및 정책캠페인 개발 및 평가를 수행
- 고객 컨설팅 참여시 1단계로 문제해결 방안, 연구방법, 연구진행 일정,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포함한 1~3페이지의 Brief를 제출하여 1차 심의를 받고, 2단계로 세부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 심의 진행

- 사회조사 전문 기관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정교한 CATI시설 중 하나를 개발하였으며,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



□ 방문후기 및 시사점

- 시장조사 및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연구소라는 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원과의 차이가 있으나, 공공부문의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 변화 프로그램, 정책의 효과, 공공정보 및 교육 캠페인의 효과성 등을 측정 평가한다는 점이 의의
- 출연금 없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 충원·유지라는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내 학위취득 이후 연구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력이 많음에 따라 인력 충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선거인명부(Electoral Rolls)와 자체 콜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각종 시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책현안 대응, 영향 평가 수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3 호주 연구위원회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1.(금) 10:30, 호주 연구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정호연 단장 외 19명
 - 호주연구위원회 : Professor Therese Jefferson 등

□ 주요내용

-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ARC) 기능 및 특징
 - 호주연구위원회는 영연방 단체이며 연구문제에 관해 호주 정부에 자문, 연구 개발에 호주 투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국가 경쟁력 보조프로그램을 관리, 호주 연구 및 혁신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 최고 품질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의 질, 연구 협력, 연구 영향을 평가하고 조언함으로써 호주를 위한 지식과 혁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
 - 호주 연구위원회의 자금은 National Competitive Grants Program(NCGP) 산하에 있으며, 호주 연구개발투자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NCGP를 통해 연구자에게 연간 평균 약 8억 달러를 경쟁적으로 지급
- ERA(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호주연구 우수성)
 - ARC는 호주의 국가연구 평가 프레임워크의 우수성을 관리
 - ERA는 호주 고등 교육기관의 모든 연구활동에서 우수성을 확인하고 호주의 대학연구를 국제 기준과 비교하며 연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 부상하는 연구를 확인
 - 모든 대학은 직원, 출판물 및 기타 연구결과에 관한 세부정보, 수상내역, 산업 및 기타 연구 사용자로부터의 수입, 연구 상업화 수입 및 특허와 같은 기타적용 조치 등 규율에 따른 지표로 품질평가 실시

○ Linkage Project

- Linkage Project는 고등교육기관, 정부, 기업, 산업 및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연구 및 혁신의 주요 이해 관계자 간의 국내 및 국제 협력, 연구 파트너십을 촉진
- 연구 및 개발은 문제에 대한 고급 지식을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하며 연구의 상업적 혜택이나 기타 혜택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고등 교육기관과 기타 혁신시스템 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Linkage Project제안은 프로젝트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기금 결과가 발표
- 제안서(조직의 현물 및 현물 출자총액)의 합산된 조직 기여금은 호주연구 위원회(ARC)가 요구한 총 자금과 일치 필요
- Linkage Project의 목적은 문제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 교육 기관과 산업 및 기타 연구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여러 조직 간의 장기 전략연구 제휴의 개시 및 개발을 지원

○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 ARC는 국제연구 공동작업 기회를 창출하고 향상
- ARC는 기금조달계획을 통한 국제 연구 협력지원 및 해외연구기관과의 정기적인 계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활동을 수행
- 모든 ARC 기금계획은 자격이 있는 호주 기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호주 및 국제 연구원에게 공개되며 Discovery Project는 개별연구자 또는 연구팀의 우수한 연구를 제공
- Dicoverry International Awards는 해외에서 일하는 호주 기반 연구자 또는 프로젝트에서 호주에서 일하는 해외연구원을 지원

○ National Competitive Grants Program(NCGP)

- ARC는 국내 경쟁을 통해 최고 품질의 기본 및 응용 연구와 연구훈련을 지원하는 NCGP를 운영
-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과 지식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고품질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원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

- NCGP는 두가지 기금 마련 프로그램인 Discovery과 Linkage로 구성
- Discovery는 새로운 아이디어, 일자리창출, 경제 성장 및 호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주 혁신시스템에 필수적인 기초연구를 지원
- Linkage는 고등교육기관, 정부, 기업, 산업 및 최종사용자를 포함하여 연구 및 혁신 분야의 주요 이해 관계자 간의 국내 및 국제협력 및 연구 파트너십을 촉진



□ 방문후기 및 시사점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를 위한 기금 전달 방식이 인상적임
- 해당 연구를 위해 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와 연구 품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 시행
- 한국의 기관과 비슷한 성향의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폭넓은 분야의 연구기금 및 기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보다 까다로운 기준 및 평가로 국내에도 적용이 된다면 연구 성과물에 대한 품질향상 기대 가능

4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1.(금) 14:00,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정호연 단장 외 19명
 -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 Professor Dani amber 등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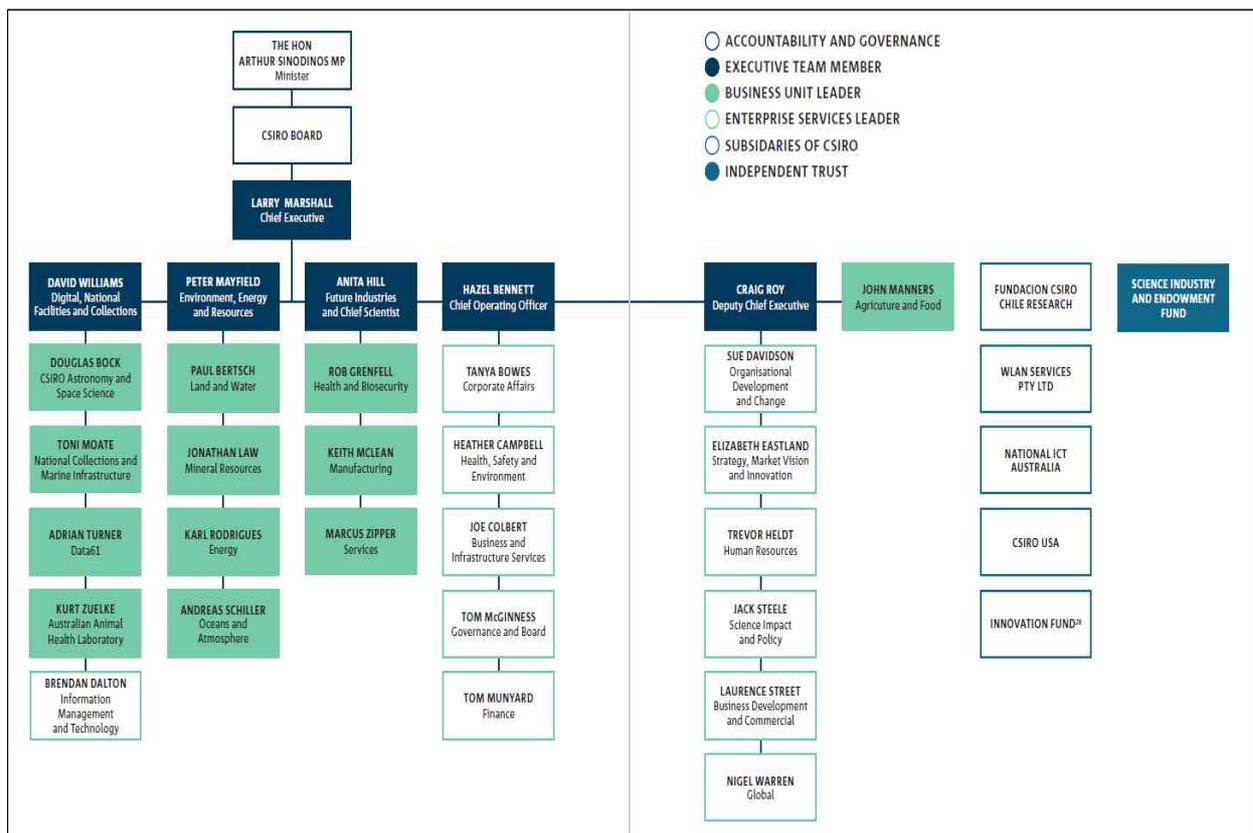
-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기능 및 역할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DIST) 산하의 연방산업과학연구기구(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는 산업 과학 및 자원에 관해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1926년 호주의 '과학 및 산업연구법(SIR)'에 의거 설립
 - 1926년 41명의 과학자들이 농업과 목축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에 조직이 확대·개편되면서 천문·에너지·환경·식품을 포함한 기후변화·해양자원·양식 등을 연구하는 통합 연구 기관으로 전환
 -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세계 최고 규모의 연구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호주 산업을 지원하고 호주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 및 국내·국제적 연구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국민생활과 생명공학에서부터 우주과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를 수행
 - CSIRO의 연구 중인 분야는 740가지가 넘는데, 그 주제도 헬스·웰빙·ICT 서비스·제조업·광물자·산업보호·우주과학까지 그 범위가 다종다양
 - 특히 CSIRO의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파를 짧게 잘라서 하나의 주파수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주파수 채널을 통해서 발신할 수 있는 기술(WiFi)을 개발함으로써 중복전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1996년 이후 특허가 만료되었던 2013년까지 총 4억 3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특허사용료 수입 확보. 또한, 원자 흡수 분광법, 최초의 폴리머 지폐 개발,

울트라배터리 개발, Aerogard 방충제 발명 등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사례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뼈 제조, 대서양 연어 번식 프로그램, 성간 가스 렌즈 발견을 통한 은하계 연구, 다기능 섬유소재 개발 등 존재

○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운영 현황

- CSIRO의 전체수입(\$1,298M) 중 약 60%는 정부보조금(\$787.3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40%(\$510.7M)는 경쟁적 과제, 외부 투자 및 로열티,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등의 외부재원으로 구성
- CSIRO의 각 연구부서에서는 농업비즈니스, 에너지 및 수송, 건강, 정보, 통신 및 서비스, 제조, 미네랄 자원, 동물연구, 우주 천문학, 보건복지, 자원개발, 환경 및 천연자원 분야의 연구를 수행

* 연방과학산업기구 조직 구성



- 현재 호주 전역의 22개 분소, 55개의 연구센터에서 약 5,000여 명의 연구자들이 호주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
- 80여 개 국가의 과학기술 유관 기관과 함께 740개 이상의 연구 프로

그럼 수행, 현재까지 150개가 넘는 스핀오프(spin off) 회사 창업, 프랑스와 멕시코 등에 R&D 센터 운영



□ 방문후기 및 시사점

- CSIRO는 농업, 식품, 에너지, 건강, 광물, 바다, 천문 등 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CSIRO의 성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였을 때, 민간부분 재원으로 산출된 성과가 \$86.9M인데 반해 정부 지원으로 산출된 성과가 \$165.6M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가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여 매년 성과를 점검하기보다,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여 보다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전담하여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CSIRO와 같이 전분야에 걸쳐 연구하는 기관은 부족. CSIRO의 연구 분야는 740가지가 넘어 그 범위가 다종다양하나, 세계적인 추세는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운영이 보편적이고, 그 성과 또한 높다는 것이 정설. 그러나 단일 연구기관에서 전담할 수 없는 융·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CSIRO의 경우와 같이 연구 분야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 혹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산업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까지, 연구와 실증을 동시 진행하는 연구 기관 운영을 벤치마킹할 필요
- 기초 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는 오랜 기간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반면 실제 생활에서 그 연구 성과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기 어려우나, CSIRO의 경우 WiFi 기술 개발, 원자 흡수 분광법, 최초의 폴리머 지폐 개발, 울트라배터리 개발, Aerogard 방충제 발명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 이와 같이 연구주제 선정부터 연구결과 도출의 전 과정에서 대국민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대국민에게 적극 홍보·소통하고,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병행 필요
- CSIRO는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분석한 논문 인용지수에서 총 14개 분야가 전 세계 과학연구기관 상위 1%에 드는 성과를 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이 외부 연구 과제를 수탁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출연연 경쟁력 약화를 가져 왔고, 장기적이고 꾸준한 연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수탁 수주 경쟁 및 많은 수탁과제를 수행하면 기관 간 협력이 저해, 원천 연구수행 소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구조적 대응책 마련을 통해 출연연 경쟁력 제고 강화 필요

- CSIRO는 과학기술 연구가 본 목적인 기관임에도 학자들과 청소년들을 연계한 프로젝트인 학생연구제도(SRS), 전국적인 규모의 청소년 과학 클럽인 '이중나선(Double Helix)' 클럽 조직·운영, 매년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학생들과 과학교사들을 선발하는 과학기술 창의상(CREST) 제도를 운영
 - 특히, 이번에 방문한 CSIRO 내 디스커버리 센터는 한해 6만명이 방문하는 연방과학산업연구소 관내에 설치된 홍보관이며, CSIRO는 학생들의 과학기술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대중화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 경제·인문사회분야 출연연구기관도 교육 기능을 강화를 통해 일반인이 관련 분야에서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 필요

<해외연구기관 방문 A, B그룹>

방문결과 종합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기후변화, 사회혁신·통합, 재난·안전 등 단일 연구기관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전담할 수 없는 융·복합적인 사회문제 및 연구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에서 주어진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연구기관의 사례처럼 연구 분야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및 정관에 의해 연구 범위가 제한되는 현재의 환경이라면 산학연, 민관(정부 및 지자체), 과학기술 및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걸친 융·복합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 범위 및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최근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연내 신설하고, 산업 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계획도 수립키로 하였는데, 호주의 CSIRO와 같이 독립 혹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산업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까지, 연구와 실증을 동시 진행하는 연구기관 운영을 벤치마킹할 필요

- 호주 연구위원회는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을 통해 국제연구 공동작업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호주의 재능 있는 연구자들이 국가 혁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도적 연구원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호주 산업과 동맹을 맺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 CSIRO의 경우 80개국을 넘는 나라의 제1과학기구,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국제적재단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 추진(우리나라의 부산시, 부산대, 인천대, 조선대, 서울의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교류·협력). 해외 연구기관의 국제화 노력에 대응하여 경제·인문사회분야에서도 국제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호주연구위원회는 차세대 연구원의 훈련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CSIRO는 과학기술 연구가 본 목적인 기관임에도 다양한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경제·인문사회분야 출연연구기관도 차세대 연구원을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초·중·고교, 대학생, 기타 일반인을 대

상으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 관련 분야에서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경제인문사회분야에서 대국민적 관심 및 호응을 부르는 연구성과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연구주제 선정부터 연구결과 도출의 전 과정에서 대국민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대국민에게 적극 홍보·소통하고,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병행 필요
- 우수직원 해외연구기관 방문프로그램은 선진연구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향후 다양한 선진연구기관 방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 발전과 업무역량 제고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함.